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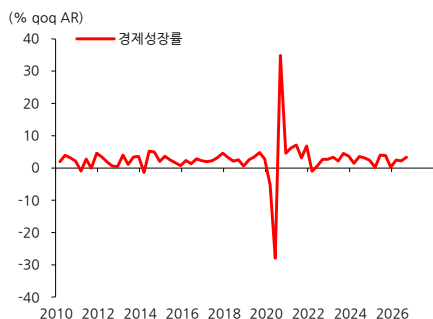
Macro Review

3/4분기 미국 GDP: 내수가 끌고 간다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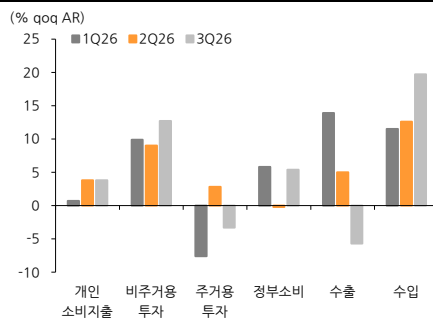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3/4 분기 GDP: 전기대비 연율 +3.4%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양호한 소비와 투자 vs. 수출 감소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국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호한 소비와 견조한 투자가 내수를 지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외 부담도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호한 내수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2%대 성장을 예상합니다.

3/4분기 미국 GDP 예상치 상회

3/4분기 미국 GDP는 전기대비 연율 3.4% 성장하며 예상치 상회(전기 대비 +0.8%, 전년동기대비 +2.2%). 비주거용 투자(+12.7%)가 2020년 3/4분기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고, 개인소비지출(+3.8%) 또한 양호한 흐름 유지. 반면 상품 수출(-7.4%)이 감소하고 상품 수입(+26.4%)이 크게 늘어나며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

견조한 내수 vs. 순수출 부진

개인소비(+2.5%p)와 고정투자(+1.7%p)를 더한 내수(+4.2%p)의 성장 기여도가 2021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았음. 상품보다 서비스 부문이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정부(+0.9%p)의 성장 기여도 또한 양호. 반면 순수출(-3.3%p)은 4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

내수 모멘텀 지속, 대외 부담 완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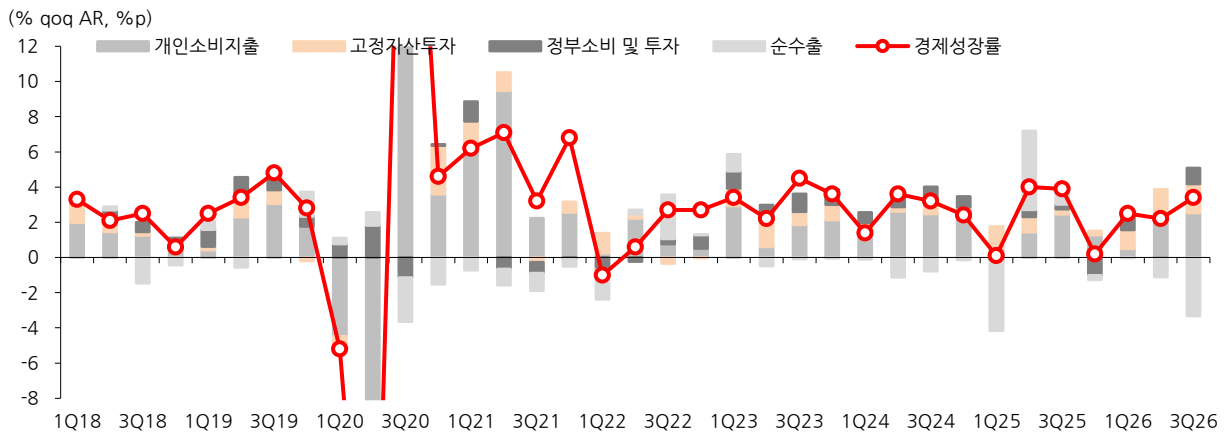
미국 경기 위축 가능성 낮음.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내수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외 부문의 실질적인 부담 또한 외형 만큼 크지 않기 때문

첫째, 양호한 내수가 앞으로도 성장을 주도할 것. 가계 서비스 지출과 비내구재가 소비 모멘텀을 이끌고 있음.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고려하면 가계 구매력도 양호해 향후 소비가 급격히 꺾일 가능성은 낮음. 설비투자도 정보처리장치(+37.4%)와 산업용 장비(+24.7%)를 필두로 크게 반등.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과 자본지출이 내수를 지지

둘째, 대외 부문의 실질적인 성장 부담은 제한적. 금번 순수출 부진은 대외 경쟁력 약화보다, 미국 기업들의 설비 확충을 위한 자본재 수입과 연말 쇼핑 시즌 대비 선제적 재고 축적이 맞물린 결과. 향후 선반영된 수입 수요와 재고 확보가 진정되며 대외 부담은 완화될 것. 대외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양호한 내수를 바탕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간 2%대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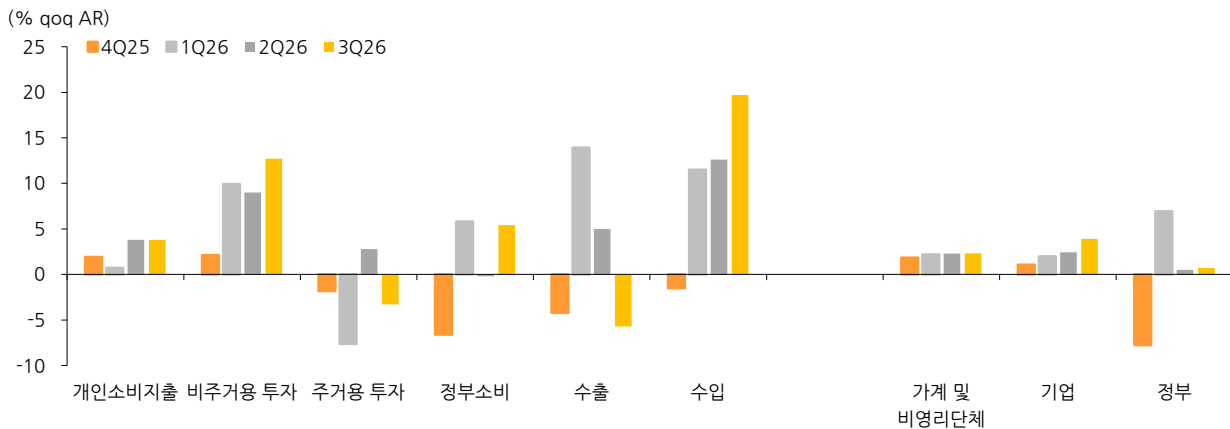


[그림1] 3/4 분기 GDP: 전기대비 연율 3.4%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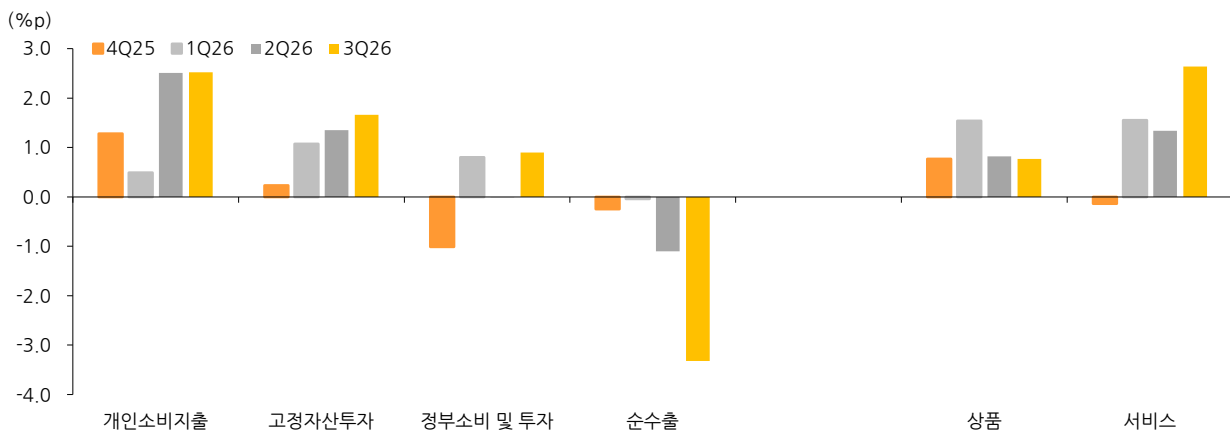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지출항목 및 경제활동별 성장률: 양호한 개인소비와 비주거용 투자 vs. 수출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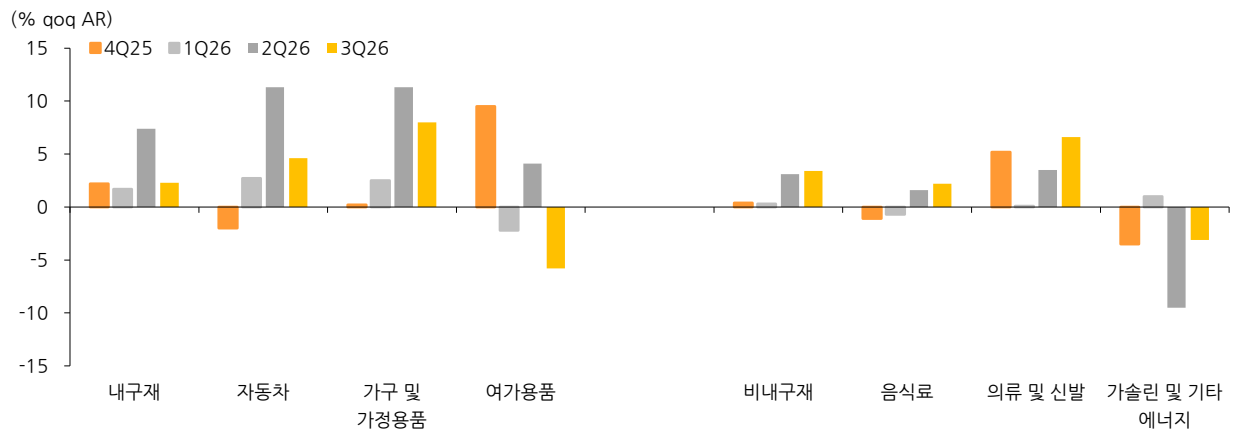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GDP에 대한 전기대비 기여도: 소비와 투자는 성장 기여 vs. 순수출은 성장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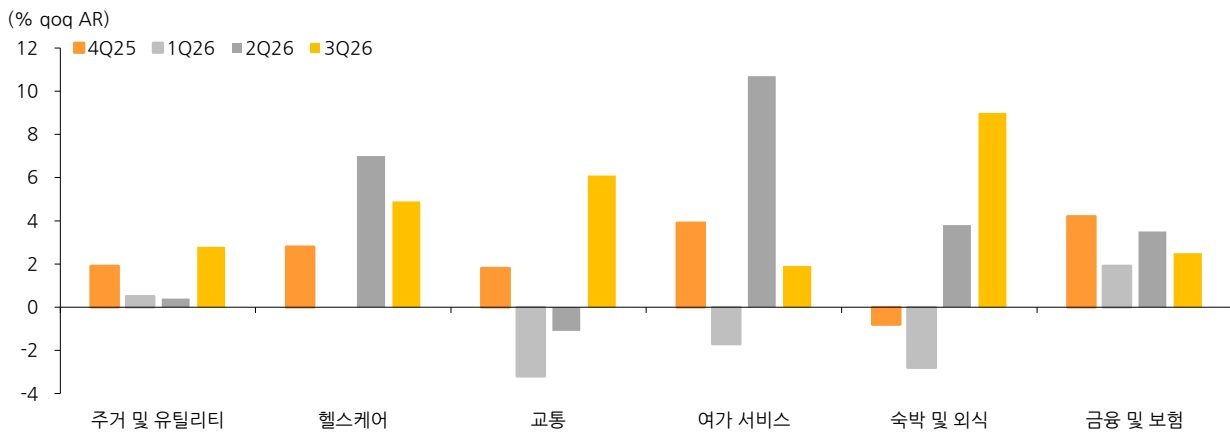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상품 소비: 내구재 수요 둔화 vs. 비내구재 수요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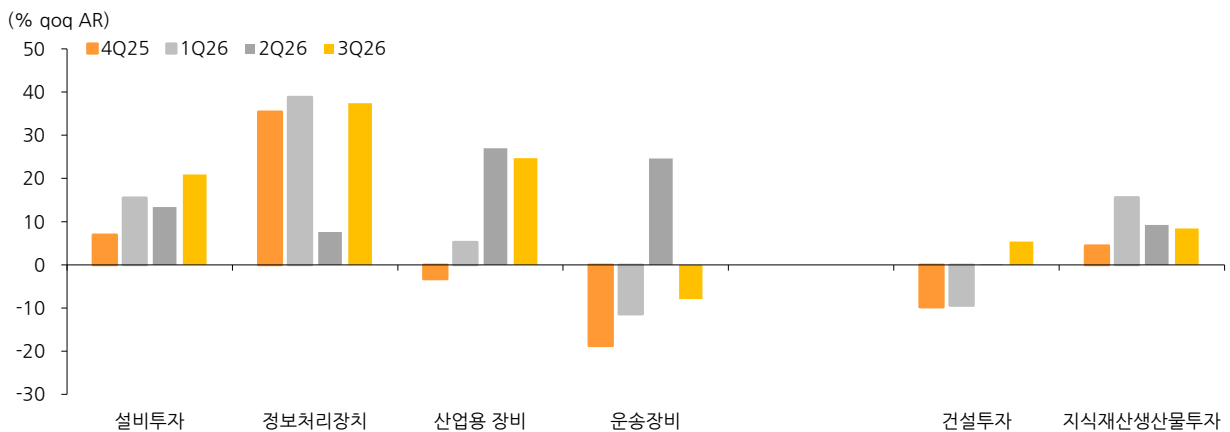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서비스 소비: 품목별로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세는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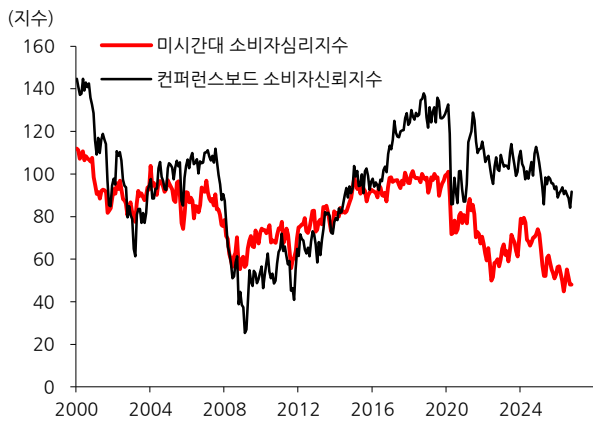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비주거용 투자: 운송장비를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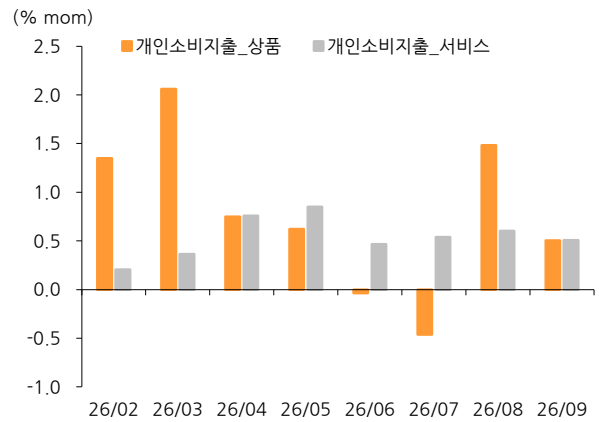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소비심리 회복세는 여전히 약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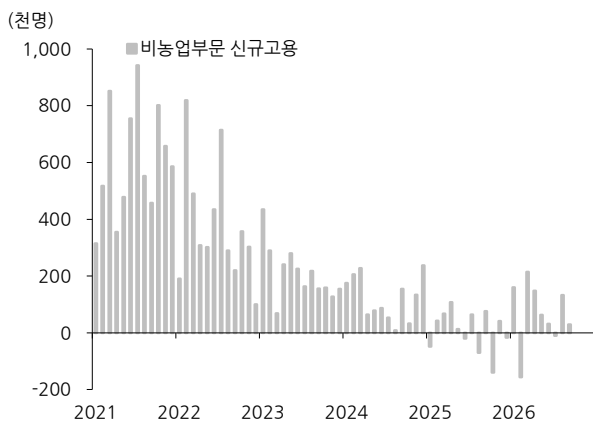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The Conference Boar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다만 소비지출은 양호한 흐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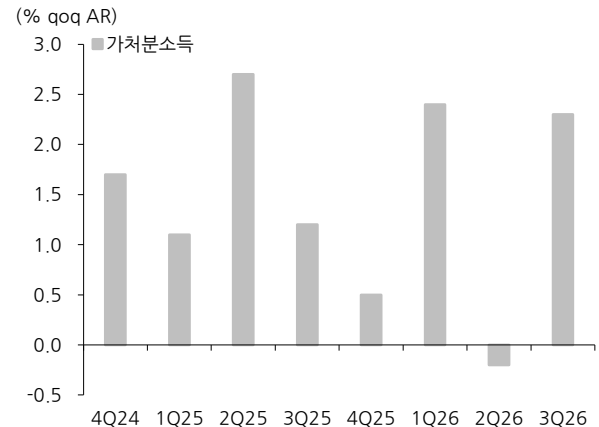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고용 침체 가능성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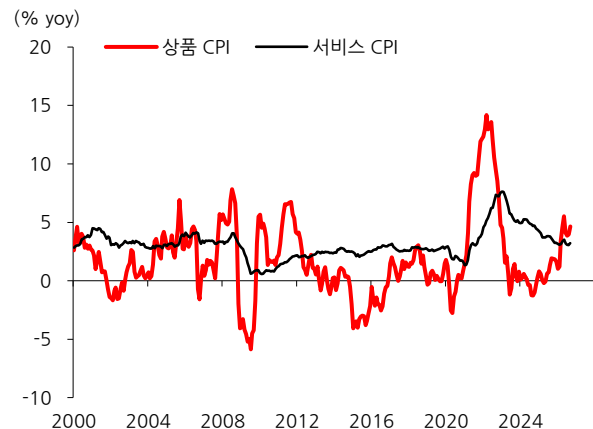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가처분소득 전기대비 연율 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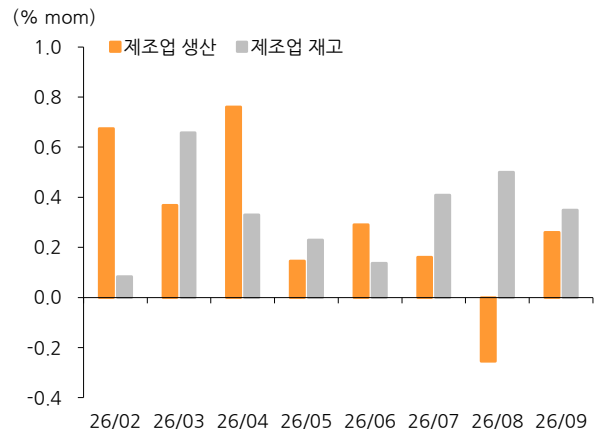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상품 물가 부담 당분간 지속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제조업 업황 우려 크지 않은 편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